

5년 연속 소비자 선택 받은 파크밸리GC

문경골프&리조트·파인리조트
사우스스프링스CC는 최고점 영예

소비자가 뽑은 국내 최고의 골프장은 어딜까. 그 답이 궁금한 이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다.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업체 XGOLF(www.xgol.com)가 공동 주최한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로 5회 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88컨트리클럽(경기 용인), 라데나골프클럽(강원 춘천), 문경골프&리조트(경북 문경), 사우스스프링스컨트리클럽(경기 이천), 서원힐스컨트리클럽(경기 파주), 솔모로컨트리클럽(경기 여주), 신라컨트리클럽(경기 여주), 클럽모우 골프앤 라이프스타일(강원 홍천), 파인리조트(강원 고성), 파크밸리골프클럽(강원 원주)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과거 소비자와 전문가의 공동 평가를 통해 10대 골프장을 선정하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100% 소비자의 목소리만을 들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5월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국내 최대 골프 부킹 서비스업체인 XGOLF가 공동 주최한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시상식이 12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선정된 열 곳의 대표들과 송영언 스포츠동아 대표이사(뒷줄 맨 왼쪽),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조성준 XGOLF 대표이사(맨 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충원 기자 won@donga.com

31일까지 1년 간 7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XGOLF 홈페이지에 올라온 약 19만 건의 골프장 이용후기 중 내장객 소감이 100개 이상 달리고 평점이 9.0점(만점 10점)을 충족하는 골프장 16개를 1차 후보로 추렸다. 2차에서는 올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XGOLF를 통해 1차

후보 골프장을 예약해 라운드 한 고객들에게 스캐디서비스(경기 운영) △코스관리 △그린피만족도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의 이용 후기를 받았다. 1,2차를 각각 50%씩 합산해 상위 10개를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으로 선정했다. 파크밸리GC(총점 9.3점)는 유일하게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골프장	위치	코스
88	경기 용인	회원제 36홀
라데나	강원 춘천	회원제 27홀
문경	경북 문경	대중제 18홀
사우스스프링스	경기 이천	대중제 18홀
서원힐스	경기 파주	대중제 27홀
솔모로	경기 여주	회원제 36홀
신라	경기 여주	대중제 27홀
클럽모우	강원 홍천	회원제 27홀
파인리츠	강원 고성	대중제 27홀
파크밸리	강원 원주	대중제 18홀

※ 가나다순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문경골프&리조트와 사우스스프링스CC, 파인리조트가 가장 높은 9.5점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를 대표해 나선 김동진 솔모로CC 대표는 "100% 소비자의 의견으로 10대 골프장을 선정할 만큼 신뢰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골프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스포츠토토·스포츠동아 공동기획 | 스포츠를 통해 희망 찾는 다문화 가족

“반상에선 엄마가 좋아...아빠는 너무 세요”

6 국내 첫 모녀 바둑기사 도전 위에량·권효진 부부 & 딸 지우 양

남편과는 한중바둑 친선교류전서 만나 나한테 지고 충격...중국여 실력에 충격 국제결혼? 아버지도 내 고집은 못 꺾어 딸도 바둑하겠다고 얼마나 때를 쓰던지 프로기사 꿈...똥심 강해 잠재성은 충분



한중합작 최초의 국내 모녀기사 탄생을 꿈꾸는 바둑가족. 아빠 위에량 6단, 딸 약지우, 엄마 권효진 6단(왼쪽부터)이 서울 성동구 한국기원에서 바둑판을 놓고 모여 앉았다. 딸의 힘찬 착수가 악권 패밀리의 밝은 미래를 예고하는 것만 같다. 사진제공 | 한국기원

“이제 그만 중국으로 돌아가야겠어.”
“따라갈래.”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중국의 프로바둑기사 위에량(36)은 아내 권효진(36)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굳힌 순간을 떠올렸다. 세계 여자바둑계를 평정했던 ‘철녀’ 루이니아웨이 9단의 남편 장주주 9단의 소개로 한국에 들어와 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치던 위에량이었다.

“내가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따라오겠다고 하더라. 따라오면 결국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까(웃음).”

두 사람은 2005년 웨딩마치를 올렸다. 한중 프로기사끼리의 첫 결혼사례였기에 당시 언론에서 큰 화제가 됐다.

권효진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최전성기를 구가한 한국바둑에 기를진 자양분을 공급하던 국내 바둑도장의 맹주 권갑용 8단의 딸이다. 당시 권갑용 도장과 허창희도장은 강남과 강북을 나눠 가지며 슬한 천재들을 길러냈다. 알파고와 세기의 반상전쟁을 벌였던 이세돌 9단이 권갑용의 직통제자다.

권효진과 위에량은 이성이 아니라 승부사로 처음 만났다. 2003년 1월에 열린 한중친선교류전에서 바둑판을 마주하고 앉아 1승1패씩을 기록했다.

“(권효진)남편은 여자기사에게 처음으

로 저서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바둑이 끝나고 복기를 할 때 제가 중국어로 말하니 ‘2차 충격’이 오면서 저한테 호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웃음).”

한 달 뒤, 권효진은 다시 중국을 찾았다. 제1회 정관장배 세계여자바둑선수권전 준결승전을 치르기 위해서였다. 조훈현, 서봉수, 유창혁, 이창호로 이어지는, 이른바 4인방 보유국인 한국은 세계바둑최강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지만 여사가 짧은 여자바둑은 중국이 한국보다 한 수 위였다.

권효진은 중국의 간판스타 장셴을 만나 선전했지만 1-2로 패했다. 세계대회 결승 진출의 기회를 놓쳐 상심이 컸던 권효진을 위로한 것은 위에량이었다.

●아빠도 못 말린 고집 센 딸의 중국행

위에량이 지도사범으로 일하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연애전선에는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이들의 사랑이 결혼으로 결실을 맺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금지육업 딸이 중국의 프로기사와 결혼하겠다는데 혹여 아버지 권갑용의 반대가 있지는 않았을까.

“아노, 제가 고집이 세서 이기지 못할 싸움을 아예 시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웃음). 반대하셨다면, 식은 못 올렸지만 그래도 남편을 따라 중국으로 갔겠죠.”

아버지가 딸 몰래 예비사위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의 어느 한국통 기자가 뒷조사를 맡았는데, 결과는 ‘헌 하오(매우 좋다)’. 장인어른의 허락이 떨어졌다!

두 사람은 벌써 몇 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다. 남편 위에량은 중국에서 프랜차이즈 바둑교실을 운영 중이다. 바둑교실의 명칭은 ‘악권국제바둑도장’. 부부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 ‘악권’이라 지었다. 남편의 성인 ‘위에’를 한자로 쓰면 ‘악(岳)’이다. 지점이 전국에 13곳이나 된다.

“(권효진)남편은 아무리 바빠도 한두 달에 한번은 꼭 한국으로 돌아온답니다. 아이들을 어쩌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부부 사이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다. 큰 아이가 아들 약현(11·동작초5), 둘째가 딸 약지우(13·동작초3)다. 이 중에서 동생 지우가 ‘가업’을 이어받아 바둑을 공부하고

있다. 아빠, 엄마처럼 프로기사가 되는 게 목표다.

“(권효진)원래 현이가 바둑을 배웠는데 실증을 느껴서 그만뒀어요. 지우는 전혀 계획이 없었는데, 6개월 동안 때를 쓰는 거예요. 외할아버지(권갑용)가 지우 상태를 보시더니 한번 시켜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기대를 이어받았는지 지우의 바둑실력은 입문하자마자 하루가 다르게 쑥쑥 늘었다. “질 때는 속상하지만 이길 땀 짜릿한 바둑이 너무 좋다”고 한탄다. 말리던 엄마도 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고집이 섰던 딸은, 이렇게 엄마가 되어 고집 센 딸에게 진다.

●최초의 부녀기사에 이어 모녀기사도 탄생 할까

이제 엄마의 꿈은 딸이 ‘봉련할 수 있는 프로기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어려서 바둑계가 떠들썩할 정도로 천재성을 발휘했던 엄마의 눈에 딸의 기대는 차지 않았다. “똥심이 강해 잠재성이 무궁무진하다”고 했다.

바둑은 프로기사 한중진이 운영하는 도장에서 배우게 했다. 아빠는 중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며 교육비를 책임지고 엄마는 지우의 도장책임, 도시락 담당이다. 권효진은 “자기 자식 가르치기 힘들어요”하며 웃는다.

지우도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프로기사가 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바둑”이라고 다부지게 말했다. 가끔 부모와 바둑을 둘 때는 엄마가 더 좋단다.

“엄마가 두기 편하거든요. 아빠는 접바둑이 너무 세서 별로예요.”

권효진이 입단해 프로의 관문을 뚫은 것은 1995년. 아버지 권갑용에 이어 권효진이 입단하면서 한국바둑계에는 최초의 부녀프로기사가 탄생했다.

20여 년이 흘러 이제 그 딸은 자신의 딸을 프로기사로 키우고 있다. 권효진-약지우, 국내 첫 모녀프로기사 역시 권효진에 의해 탄생할 수 있을까.

이 가족의 인생포석이 참 큼직하면서도 아름답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ROAD FC ‘야쿠자’ 김재훈 (29·탑 코리아MMA)이 2019년 케이지에 오를 계획을 전하며 자신을 도발했던 배우 금광산(42)도 저격했다.

김재훈은 올해 4월, 배우 금광산으로부터 갑작스런 도전장을 받았다. 금광산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재훈을 향해 “내 실력이면 도전해 볼 만 하다. 3개월만 준비하면 1라운드에 다운 시키겠다. 나는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도발했다. 도발 후 금광산은 로드FC와 정식 선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김광산이 도발하자 김재훈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재훈은 “평소 팬이었는데, 영광이다. 대회사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한 번 붙어봐 드리겠다. 하지만 격투기는 헬스랑 다르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당시만 해도 당장 붙을 것 같았지만, 김재훈과 금광산의 경기는 올해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재훈이 다시 금광산을 언급하며 2019년에 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재훈은 “결정된 건 아직 없지만 나를 도발했던 금광산씨가 로드FC와 선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 대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금광산 배우님과 싸우게 된다면 얼마나 팬들이 재밌어할까”라고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좋다. 대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겠다. 언제든 도전을 받아줄 테니 금광산 배우님 후회 없는 싸움합시다”고 말했다.

한편, 로드FC는 오는 15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XIAOMI 로드FC 051이 끝난 뒤 여성부리그 XIAOMI 로드FC 051 XX를 연이어 개최한다. 메인이벤트인 세계랭킹 1위의 로드FC 아톰급 챔피언 한서희와 ‘몬스터 울프’ 박정은의 타이틀전이 확정돼 아톰급 챔피언을 가린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김재훈

금광산

“금광산 한판 붙자” ‘맞도발’한 김재훈